

##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

- 광산안전센터의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전 현장점검
- 광산안전사무소장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 이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 29일(목) 최남호 2차관이 태백시에 위치한 광산안전센터 및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하여 광산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광산 안전관리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광산안전센터는 금년 3월부터 2,200여명의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산 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산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재해로 연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2월 발표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금년부터 사고유형을 분석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안전교육 개시 이전 사전 종합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반복되는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금속·비금속 등 광산유형 별 재해방지 안전실무·사례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최 차관은 금년 광산안전교육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광산재해 시 적기에 근로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신 무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갱내통신과 위치확인 기술개발 현황을 확인하였고 최신 안전장비 등을 광산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전국의 634개의 광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산안전법 상의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정기 및 수시·자체검사와 필요시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안전검사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최 차관은 광산근로자의 재해예방이 국내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 당부하면서 광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260)
	석탄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최인성 (044-203-5264)